

통신서비스

미국 FCC, 망 중립성 무력화 방안 통과

통신서비스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미국 FCC, 망 중립성 무력화 방안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14일 망 중립성 무력화 방안 표결에서 공화당 추천인사 3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3대 2로 가결. 표결에 부쳐진 망 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사업자(ISP)를 통신법상 Title 2에서 Title 1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 이에 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FCC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규제를 받는 환경이 마련

What's Next?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AT&T나 Verizon과 같은 통신사업자에게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다만, 이번 투표 결과가 온전한 망 중립성 폐지를 의미하진 않음. 망 중립성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상황이며, 법적 절차에만 추가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

과기정통부, '제로레이팅' 사전규제 하지 않을 방침

14일 국내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정책 동향 설명회에서 '제로레이팅'에 대한 입장에 대해 "기술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며, "특정 잣대로 사전 규제하지 않고 시장 발전 정도를 지켜보며 사후 규제하겠다"라고 밝힘. 이에 따라 아직까지 일부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로레이팅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통신비 절감을 위한 보완책 기능을 일부 담당할 것으로 기대

시사점

미국에서 촉발된 망 중립성 논쟁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정당한 망 사용 대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만큼 통신주 섹터에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 특히, 국내 통신주의 경우 잇따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규제에 내성이 쌓인 만큼 이번 망 중립성 폐지 논의가 통신주에 대한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참고로 AT&T, Verizon, T모바일 등 미국 통신주들은 연초 이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왔으나, 망 중립성 폐지 표결을 앞둔 11월 16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한달 사이 각각 +18.4%, +11.6%, +10.4% 주가수익률 시현

표1 국내 제로레이팅 데이터사용료 면제 현황 (2017년 9월 기준)

업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서비스명	11번가	지니팩	U+데이터 비디오 안심옵션
	쇼킹딜 11번가	올레TV 모바일	콘텐츠 데이터프리
	T롯데닷컴	다음 카카오택	3시간 데이터프리
	동부화재 다이렉트	카카오택시	24시간 데이터프리
	포켓몬고	KT내비	Uflix 데이터팩
	T-map	재난현장 영상	U+Box LTE데이터팩
	모바일 T월드	데이터 프리존	LTE 비디오포털팩
	박스	삼성화재 모바일 계약서	뮤직 데이터프리
	비트	KT 고객센터	U+ 데이터 뮤직 안심옵션
			지니뮤직 마음껏듣기
			U+뮤직벨링
			원네비

자료: 언론,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2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2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